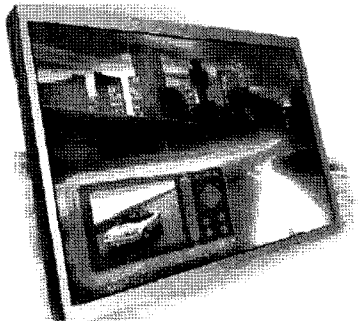


차세대 디스플레이 집중육성으로 세계 1위의 선도적 위상을 공고히 한다.

민·관 공동으로 약 21조원 투자 계획
2015년까지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국산화율을 현재 50%에서 70%로 확대

개요



- 지식경제부는 5.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“디스플레이 산업의 동향 및 대응방안”을 보고하고,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관련 장비·부품소재 산업의 육성방안을 발표함
- 지경부는 금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최근 중국의 LCD 산업 육성 본격화에 따른 LCD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,
 - 민관 공동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, 장비·소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세계 1위의 선도적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, 우리나라는 장비·부품소재 산업 위주로 동북아 분업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
 - ※ 중국정부는 5~6개 국내의 기업의 LCD 투자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(3개 로컬기업 既승인)
 - ⇒ 신청현황: (既승인) BOE, IVO, TCL / (신규신청) LGD, 삼성전자, Sharp, Foxconn, BOE, 허페이서 프로젝트)
 - ※ 1천억 위안(150억불)의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7~8세대 LCD 생산기반 확충 계획
-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의 11세대급 차세대 LCD 고도화 투자 약 10조원, AM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약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,
 - 지경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장비·부품소재 개발 및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것임
 - ※ 약 5천억원(11~17년)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
최근 동향

- 금년 세계 디스플레이시장은 중국 내수 진작에 따른 수요 증가로 세계 경제성장률(IMF, 10년 4.2% 전망)을 훨씬 상회하는 13% 수준의 고성장 전망

〈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추이〉

(단위: 억불)

	2008	2009	2010	전년대비 증가율
전체	1,720	1,523	1,724	13.2%
패널	1,061	912	1,022	12.1%
장비	138	70	104	48.6%
부품소재	521	541	598	10.5%

※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, PDP, OLED 패널 등으로 구성

-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세계 1위를 유지

○ 지난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(△13.9%)했음에도 불구하고, TV용 LCD 패널 수출은 20% 증가하여 세계시장 점유율 50% 이상 확대

※ 디스플레이 패널시장 점유율('09년, 디스플레이뱅크): LCD(46%), PDP(52%), OLED(78%)

※ 우리나라 TV용 LCD 패널시장 점유율(%): ('07)43.7 → ('08)45.8 → ('09)52.5

- 다만, 우리 장비·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하여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소재의 해외 의존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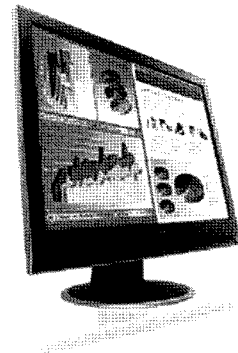
※ 우리의 장비 수출입('08): 수입 13.4억불, 수출 7.6억불, 적자 5.8억불

※ 우리의 소재 수출입('08): 수입 60.4억불, 수출 40.9억불, 적자 19.5억불

- 한편, 최근 중국의 LCD 산업 본격 육성, 中-臺간 LCD 연합으로 향후 LCD 패널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

※ 삼성과 LG 등 韓·中·日·臺 4개국 9개사가 중국내 LCD 패널 투자를 추진중

※ 中·臺 경제협력기구협정(ECFA) 체결시, 양국간 LCD 협력 가속화 예상



집중육성 계획 세부내용

① 장비·소재산업 경쟁력 강화

- 패널·장비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“차세대 LCD 장비·소재 개발 협의회”를 설치, 운영(‘10.6월)하고, 11세대급 LCD 및 8세대급 AM OLED 국산 장비·소재의 수요연계형 개발을 추진(‘11~ ‘16년)
- 차세대 LCD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과 연계하여 중소장비기업의 R&D에 대한 세액 공제 허용을 검토
 - ※ 11세대 LCD, OLED·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장비가 신성장동력 R&D 투자세액 공제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
- 민·관 합동 디스플레이 융합포럼 구성·운영, 상생협력에 관한 정기적 점검 및 포상 강화를 통해 수직계열화된 패널-장비기업간 관계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여 장비산업의 성장 지원
 - ※ 패널업체별로 수직계열화된 패널-장비소재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되, 반기별 1회는 통합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

② 新기술 개발 지원 및 기반조성

-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인 플라스틱 유연기관, 공정기술 및 생산장비 개발 추진(‘10~ ‘19년)
- 새로이 개발된 장비·소재의 신뢰성 평가·검증에 필요한 “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·소재 테스트 베드” 구축 검토(‘10.11월)
- 차세대 생산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“인쇄전자 분야의 발전 로드맵”을 산학연 공동 수립(‘10.10월) 및 국제 워크샵 개최(‘10.9월)

③ 전문인력 양성

- 업계의 지속적인 인력난 건의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므로, -인력애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(‘10.7월)하고, 이를 토대로 ‘10.9월까지 디스플레이산업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, 지경부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에 반영(‘11년)
 - ※ ‘10.2월 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 : ① 고급인력 확보 애로, ② 전자·기계·SW융합교육 필요, ③ 실습중심의 교육, ④ 출연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



4 해외진출 지원

- 중국 LCD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중소 장비·소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전시회 및 1:1 무역상담회 등을 추진하고,
-북경·상해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 장비·소재업체의 공동물류센터로 활용토록 하고, 사업정보를 제공할 예정
- 또한,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대비하여 디스플레이협회 내에 특허지원센터 설립(10.11월)

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

- 아울러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율(8%)을 인하(관계부처와 협의)해 나갈 예정이며,
 - 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” 제정에 따라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데 필요한 친환경 공정, 장비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
-이를 위해 친환경 디스플레이에 대한 산·학·연 공동연구, 인력양성 및 테스트 베드 구축을 위한 Eco-Display 연구센터 구축추진
- 또한, 중국에 기술 이전되는 8세대급 LCD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
 - “산업기술유출방지법”상 국가핵심기술보호 시스템이 현지공장에서 운영되도록 조치하고, 국가핵심기술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
- 지경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LCD 세계 1위에 이어,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시장 선점의 기반이 조성되는 한편,
 - 15년까지 디스플레이 장비·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70%로 확대됨으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LCD 시장에 대한 장비·부품소재의 공급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